

얼굴形態에 따른 性格分類에 關한 研究

임 상 용¹⁾ · 고 충 환²⁾

- 목 차 -

I. 序 論	III.. 研究結果 및 論議
1. 研究의 必要性	1. 얼굴형태의 분류
2. 研究目的	2.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측정
3. 研究의 制限點	3. 얼굴 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II. 研究方法	4. 성격 요인간의 상관관계
1. 研究對象	5.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2. 測定道具	IV. 結論 및 提言
3. 實驗節次	參 考 文 獻
4. 資料處理	

A Study on the Personality Classification According to Figure Configuration

Ihm, Sang-Yong · Koh, Chung-Hwan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undertaken to classify the personality figure configuration. The subjects participated for this consisted of 348 samples randomly attending university.

The measurements used for this consisted of two categories including Cattell's 16PF questionair made 150 questions of 15 factors and photography for digitization 5 point of figure.

The statistical result were standard deviation & mean of sten score, pearson correlation for signficience difference of peronality classification by figure configurations and MANONA analysis to investigate signficient difference by figure configurations.

The conclusions obtained were as follows: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2) 한라전문대학교 겸임교수

1. The classification of personality of Human being by figure configuration could be analysed by six figure configuration composing egg, round, square, inverse triangular, trapezoid and pentagonal-figures.
2. The validation Test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instrument for personality classification turned out not to be nearly difference but some factors.
3. The application of western's to oriental instrument(physiognomy) of personality classification was shown to be agreement due to analysis result of pearson correlation between personality factors by figure classification.
4. Therefore, being consideration above the results. We could conclude that application of oriental philosophic classification method of personality to western scientific method was rational, objective classification method.

1.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현대사회는 더 이상 신체적 기형 특히 자신의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끼는 시대가 아니다. 발달된 의학기술은 인간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고 인간의 내부기관을 수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얼굴형과 골격마저 변화 시키는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얼굴형이나 인상학 또는 관상학에서 말하는 신체의 많은 기관들 점, 선, 살, 각 등의 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하늘이 내려준 운명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얼굴은 인간의 마음을 솔직하게 반영해 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상학에서의 기본적인 판단 이념이다(마의천, 1994). 얼굴이 다르다는 것은 각자 자기의 心魂의 그릇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심혼의 그릇에는 여러가지 인간이 해야 할 직분이 태어날 때부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각각 직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정현우, 1991). 心魂의 그릇 표현인 인간의 얼굴에는 숙명적인 성격이 담겨져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뇌라고 할때 이 뇌를 감싸는 기능을 하는 것이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에는 뇌가 간직한 모든 사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원래 얼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대뇌가 작용하는 기능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그림자를 뜯어고치더라도 대뇌라고 하는 본질(本質), 즉 인간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직분이나 성격도 당연히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정현우, 1991).

이처럼 관상학이나 인상학에서는 인간의 관상을 통해 성격을 파악하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응용하고, 실제로 사람의 됃됨이를 판단하고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하여 왔다. 관상을 통한 연구방법이 동양적인 것으로 동양에서 발달하였다면 서양에서는 골상학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시대에서 부터 이미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인상(人相)의 학문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정현우, 1991) 사람의 얼굴 모양

과 동물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 그 유사점을 바탕으로 성격을 파악하였다(마의천, 1994). 가령 사람의 얼굴이 사자와 비슷하게 생겼으면 용감하다든가, 사람의 코가 소의 코와 비슷하면 감각이 둔하다든가, 나귀와 인상이 비슷하면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판단 한 것 등이다(정현우, 1991). 이후 스코트(Scott, J)가 점성과 인상을 연결시켜 천체의 혹성 10개의 영향에 의한 얼굴 모양과 성격, 운명 등을 파악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ionardo davan'ci)의 「인간의 얼굴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 코클레(Cokeler)가 쓴 「인상술 대요」 안티투스(Antitus)가 쓴 「인상술」 등의 저술이 전해져온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얼굴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랫동안 연구되어져 왔다.

이후 현대과학이 발달해 오며 따라 많은 과학자들의 실험적 방법에 의해 인간의 성격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오늘날 성격 심리학의 형태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전해내려온 관상에 의한 성격파악의 문헌들은 모두 동양 철학 적측면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이러한 분류기준에 대한 현대 과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증명한 결과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연구는 이런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서양에서의 많은 성격유형 분석법이 많은 시간과 많은 자료를 토대로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외, 과연 동양철학에 기인한 얼굴형태에 따라서 성격의 분류가 가능한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이 결과 추후 동양철학에 기인한 관상학에 의한 성격분류를 위한 도구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研究目的

본 연구에서는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의 분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 1)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가능한지를 파악한다.
- 2) 얼굴형태가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3) 서양의 성격검사지에 의한 성격분류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적용되는지를 파악한다.
- 4)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한 후 얼굴형태에 의한 성격파악이 합리적인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를 위한 도구제작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3. 研究의 制限點

본 연구에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성격분류를 위한 도구를 제작할 때 일반화 및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표본을 최소한 수천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는 표준화도구 제작을위한 사전단계로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체육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을 무작위 표본으로 가정했다.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대학 교양체육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 하였으며, 표본수는 남녀 구분없이 34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들의 연령층은 성격 및 체형의 특성이 이미 완성단계에 접어든 19세에서 23세로 하였다. 또한 대상의 생활환경 및 지역을 무시 하였고, 운동참여 유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표집된 대상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2) 연구대상의 유형

구 분	계란형	원 형	사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	계
인원수	69	57	50	72	44	56	348

2. 測定道具

1) 얼굴형태에 따른 변인설정 및 용어정의

얼굴유형에 따른 성격분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으로서 첫째, 종속변인은 Cattell의 16PF의 한국실정에 변형한 성격유형검사척도의 15개 요인으로서 요인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특성으로서 온정성, 강한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강한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불신감, 죄책감, 진보성, 자기충족성, 강한통제력, 불안감, 사변성, 실리성 등의 15개를 둘째, 독립변인으로서 삼질론과 삼형질론을 결합하여 연구자의 임의대로 계란형, 원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사각형, 및 5각형의 총 6개형을 선정하였다.

- (1) 계란형 : 얼굴의 형태가 각이 거의없고, 계란형에 가까운 형
- (2) 원형 : 얼굴의 형태가 각이 거의없고 정원형에 가까운 형
- (3) 역삼각형 : 얼굴의 형태가 턱을 중심으로 거의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
- (4) 사다리꼴형 : 얼굴의 형태가 상위부분이 더 좁고, 하위부분 더 넓은 사다리꼴 형
- (5) 사각형 : 얼굴의 형태가 정사각형이든,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
- (6) 5각형 : 사다리꼴에서 하위부분에 역삼각형에 가까운 형

2) Cattell의 16PF 성격측정도구

Cattell(1949)의 16PF는 특질론적 성격연구검사도구로서 인간의 성격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무려 18,00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고 최종적으로 16개(180문항)의 성격 특질을 측정 하는 180개의 문항으로 이의 용도는 모든 성격의 범주를 포함하며, 임상, 상담, 교육, 산업, 스포츠장 면에서 일반인의 성격 이해에도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정규, 1990). 16PF는 스포츠 성격 연구에 Heusner(1952)가 처음 활용한 이래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Cattell의 16PF는 염태호와 김정규(1990)에 의해 한국형에 적합 하도록 변형한 후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및 타당성을 입증한후 표준화되어 임상, 산업, 학교 등 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수리적 채점방식이 요구되는 지능 요인과 관련된 15개(1개 척도)의 문 항을 제외한 15개척도의 15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5개 성격측정 요인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특성으로서 온정성, 강한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강한도덕성, 대담성, 민감성, 불신감, 죄책감, 진보성, 자기충족성, 강한통제력, 불안감, 사변성, 실리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연구대상자가 각각의 질문에 대한 인지하는 정도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한 ①-⑤번까지 선택하게끔 Likert방식으로 구성하였다.

3. 實驗節次

본 연구의 실험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하나는 Cattell의 16PF의 한국 실정에 맞게 변형한 성격유형검사척도의 검사지로서 각 문항에 답하기전 충분한 사전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게 한 뒤 각 문항에 대해 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둘째 6가지 얼굴형태에 대한 성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각 개인마다 이름과 고유번호를 지정한 후 벽면에 직립자세로 서게 한 뒤 카메라로 정면에서 얼굴형을 촬영하는 방식이다. 이 때 얼굴의 윤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머리칼을 촬영이전에 정리하게 하고, 카메라의 줌은 얼굴만을 포착할 수 있게 하므로써 더욱 쉽게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성격검사지와 촬영을 완료한 연구대상간의 일치치를 위해 고유번호를 동시에 화면에 나오게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질문지에 답한 고유번호와 일치시키므로써 동일인을 확인하였다.

연구변인 설정에 따라서 얼굴의 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3차원 동작분석기를 이용하여 촬영된 비디오를 화상에 비추어 각각의 얼굴에 대해 각 포인트마다 디지털이징(digitization)을 하므로써 분류가 가능했다.

이 때 디지털이징 포인트는 ① 이마의 양쪽 끝부분 2개점, ② 양쪽 광대뼈 2부분, ③ 양쪽 하악골 후돌기부분, ④ 턱부분의 순으로 매 대상마다 6개의 포인트에 대해 디지털이징한 후 나온 11개쌍의 X, Y좌표를 토대로 얼굴의 각도를 분석하여 용어정의 방법에 따라서 얼굴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4. 資料處理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게 실험결과 나온 자료를 토대로 Cattell의 16PF의 성격분류와 관상학에 따른 얼굴유형을 분류한 뒤 얼굴유형에 따라서 Cattell의 16PF의 성격분류에 대한 점수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유형에 따른 차검정을 위해서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얼굴유형에 따라서 Cattell의 16PF의 성격분류기준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모든 자료 처리를 위해 사용한 통계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였다.

Ⅲ. 研究結果 및 論議

1. 얼굴형태의 분류

본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48명으로 남자 273명, 여자 75명으로 얼굴형태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 계란형의 유형은 남자 45명, 여자 24명, 원형의 유형은 남자 40명, 여자 17명, 사

각형의 유형은 남자 42명, 여자 8명, 역삼각형의 유형은 남자 61명, 여자 11명, 사다리꼴형의 유형은 남자 36명, 여자 8명, 오각형의 유형은 남자 49명, 여자 7명의 순으로 나타난 바 얼굴형태별 분류는 (표-3)과 같다.

(표-3) 얼굴형태별 분류

구 분	계란형		원형		사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인원수	45	24	40	17	42	8	61	11	36	8	49	7	273	75
계	69		57		50		72		44		56		348	

2.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측정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유형간의 성격을 비교하기 위하여 스텐 점수의 값을 평균하여 비교하였는데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 측정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얼굴 유형별 성격 측정

		계란형	원형	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
온정성, 냉정성		*** 9	*** 9	** 3	*** 2	** 3	** 8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		* 4	** 3	***10	*** 2	*** 9	* 7
지배성, 복종성		5	*** 2	*** 9	** 8	*** 2	5
정열적, 신중성		* 4	*** 9	* 7	* 4	5	*** 9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		* 7	* 7	*** 9	* 7	** 8	*** 9
대담성, 소심성		* 7	*** 9	*** 9	** 3	* 7	* 7
민감성, 강인성		***10	** 8	*** 2	** 3	5	* 7
불신감, 신뢰감		* 4	** 3	** 8	***10	* 7	*** 9
죄책감, 편안감		* 4	* 4	* 7	** 8	* 7	* 4
진보성, 보수성		* 4	* 7	** 8	*** 9	* 7	* 7
자기충족적, 집단 의존성		** 3	** 3	*** 9	*** 9	* 7	** 3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		5	* 4	***10	*** 9	** 8	5
불안감, 이완감		** 3	** 3	** 8	** 8	* 7	* 4
사변성, 실제성		*** 9	** 3	5	6	5	** 3
실리성, 순진성		*** 2	* 7	5	6	6	* 4

* 스텐점수: ***1,2,9,10 (아주높은점수), **3,8 (높은점수), *4,7 (다소높은점수)

1) 계란형의 유형

계란형의 유형에서는 온정성, 민감성, 사변성, 순진성 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집단 의존성, 이완감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약한자아강도, 신중성, 강한도덕성, 대담성, 신뢰감, 편안감, 보수성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계란형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사교적이고 친절하며 낙천적이라 남의 부탁시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의 온정성면과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남의 관심과 동정을 바라며 비현실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민감성면, 그리고 상상적이고 공상적이며, 세상물정

에 어두운 성격의 사변성면과, 감상적이고 온정적이며, 분별이 없고, 뭘 모르는 성격의 순진성면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냉정하지 못하고, 비판적이지 못하며, 강인하지 못하고, 자기주장이 없으며, 현실적이지 못하고 약삭빠르지 못한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현우(1994)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사교적이면서 우유부단하고, 감상적이며, 공상적이기도 하고, 순진한면도 있다. 투지가 강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로 머리는 좋고 감각도 뛰어나 예술이나 학문분야에 소질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치할 보이고 있다.(정현우, 1994.).

2) 원형의 유형

원형의 유형에서는 온정성, 복종성, 정열적, 대담성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약한자아강도, 민감성, 신뢰감, 집단 의존성, 이완감, 실제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편안감, 진보성, 약한통제력, 실리성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원형의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이며 사회적응성이 높은 부분의 온정성면과, 의존적이고 동조적이며, 복종적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의 복종적면, 그리고 쾌활하면서 말이 많고, 적극적이면서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솔직하면서 호의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의 정열적면과, 모험적이면서, 배짱이 있고, 우호적이면서 영웅적이고,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낮 두꺼운 부분의 대담성면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엄격하거나 정확하지 못하며, 비판적이지 못하고, 냉정하지도 못하다. 또한 자기주장이 약하고, 권위적이지 못하며, 공격적이지 못하고, 독립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침착하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향이 있으며, 억제하는 힘이 부족하고, 우월감에 곧잘 빠지기도 하는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일주(1996), 정현우(1991), 마의천(1994), 김성현(1995)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명랑하고 사교성이 있으며 노는 것을 좋아하고, 비교적 온후한 성격이며, 우유부단하고 의타심이 강하며 계획성이 다소 부족하다. (박일주, 1996.). 성격은 온화하고 밝으며 마찰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이면서 쾌활한 교재가이며 낙천적이지만 한가지 일에 몰수하지 않는 타입이다.(정현우, 1991.) 주위 사람들과 사이가 좋고, 교재가 넓으며, 형식보다 내용을 중요시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사교에 능하고 정을 중요시 한다. (마의천, 1994.) 교재가 넓고, 쾌활하며 남을 의심하지 않고 협조심이 좋으며 원만하여 적이 없고, 가정적이고 애정이 많다는 점 등에서 일치할 보이고 있다.(김성현, 1995.)

3) 각형의 유형

각형의 유형에서는 강한자아강도, 지배성, 강한도덕성, 대담성, 강인성, 자기충족적, 강한통제력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냉정성, 불신감, 진보성, 불안감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정열적, 죄책감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각형의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보다 성숙하고 침착하며,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줄 아는 강한 자아강도면과, 자기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부분도 있으며, 반항적 이기도 하고 직선적이며 독단적 행동도 곧잘하는 지배성면, 그리고 양심적이면서 신사적이고,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하며 다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부분의 강한 도덕성면과, 배짱이 두둑하고 모험적인 대담성면, 또한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고집이 세며, 남성적인 부분의 강인성면과, 자기중심적이며 남의 도움이나 지지를 원치 않는 부분의 자기충족적면,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철두철미하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의 강한 통제력면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부드럽지 못하고 조심스럽지도 못하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억제 능력이 부족하고, 다소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며, 남의 결정에 잘 동조하지 않는다. 반면에, 의지가 강하며 불안에 둔감하고, 자기 갈등이나 감정에 영향을 적게 받는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명중(1991), 백준기(1984), 정진호(1996)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윤명중(1991)은 투지가 강하고 남성적인 기백이 넘치고, 어려운 여건도 극복을 잘하여 배짱이 두둑하고 모험을 즐기는 유형이라고 하였다. 정진호(1996)는 프라이드가 높고 용기가 있어서 투쟁심이 넘치며 자기 주장이 강하나 협조성과 융통성이 부족하다. 또한 적극적이고 인내력도 강하지만 표현력이 없어 사교성이 부족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책임감과 의지가 강해 목표 완수하는 끈기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일치를 보인다.

4) 역삼각형의 유형

역삼각형인 유형에서는 냉정성, 약한자아강도, 불신감, 진보성, 자기충족적, 강한통제력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지배성, 소심성, 강인성, 죄책감, 불안감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강한도덕성은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역삼각형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비교적 냉정하고 사교적이지 못하며 비판적이면서 무심한 면이 있고, 자기 본위적이면서 엄격하고, 정확함을 선호하는 부분의 냉정성면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변덕 스러우며, 근심걱정이 많아 살이 찌지 않으며,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화를 잘내는 부분의 약한자아강도면과, 의심이 많고, 독단적이며 고집도 세고, 흥분도 잘하는 부분의 불신감면, 그리고, 실험적이면서 분석적이고 반항적이며,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의 진보성면, 자기중심적이면서 남의 도움이나 지지를 원치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의 자기충족적인면, 또한 자존심이 강하고 날카로우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강한 통제력면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친절하지 못하고 낙천적이지 못하며 어려운 난관에 불안을 느끼며 남을 잘 믿지 않고, 존중하지도 않으며 관대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보수적이지 못하며 참여적이지 못하고, 나서기를 꺼려하는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천권(1996), 마의천(1994)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천권(1996)은 감수성이 예민해 신경질적이면서도 미적 감각이 뛰어나고, 지식욕이 왕성하여 이론적 사고력이 좋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날카로우며, 자기중심적인 타입이라 하였고 마의천(1994)은 신경이 예리하고 지혜가 풍부하며, 번잡한 것을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유형이며, 틀에 박힌 형식이나 규칙, 순서를 존중하며, 체계적으로 일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며 매사에 용의주도한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5) 사다리꼴형의 유형

사다리꼴형의 유형에서는 강한자아강도, 복종성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냉정성, 강한도덕성, 강한 통제력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불신감, 죄책감, 진보성, 불안감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사다리꼴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어려운 난관에 극복을 잘하고, 보다 침착한 부분의 강한자아강도면과, 보다 동조적이고, 온건하면서 매사에 조심 스러운 부분의 복종성면에서 아주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양심적이고 성실하며 도덕적이고 보수적이며 전통적 성향을 보이는 강한 도덕성, 그리고,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하고 자존심이 강한 편이며 하는일에 허술함을 보이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자적인 부분의 강한통제력면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자기주장이 약하고, 공격적이지 못하며, 또한 권위적이지도 않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리고 매사에 느긋하고 불안을 덜 느끼는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현우(1991)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정현우에 의하면 이러한 얼굴 유형의 사람은 드물지만, 복상이다하여 운세가 대단히 좋고, 마음도 대범하여 남을 돌보는 마음씨가 있으며 사람을 잘 부리기도 하고 동조할줄도 알며, 감정과 행동을 잘 통제 할 줄 아는 타입이라고 하였다.

6) 오각형의 유형

오각형의 유형에서는 정열적, 강한도덕성, 신뢰성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온정성, 집단의존성, 실제성에서는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강한자아강도, 대담성, 민감성, 신뢰감, 편안감, 진보성, 이완감에서는 다소 높은 점수로서 경향성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 오각형 유형의 얼굴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성격은, 쾌활하면서 적극적이고, 시원시원하면서도 솔직하고, 호의적이면서도 융통성이 있으나 다소 말도 많고, 신중하지 못한 부분의 정열적면과, 양심적이고, 신사적이며 도덕적이고, 성실하면서 책임감이 강하며 보수적인 경향의 강한도덕성면과, 남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신뢰성면, 그리고 친절하기도 하고 사교적이며 다소 충동적이기도 한 부분의 온정성면과 현실적이고, 응급사태에 적응능력이 빠르지만, 다소 신중함이 없는 유형의 실제성면에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정열적이다 보니 침착하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 또한, 스트레스도 곧잘 받으며, 신중하지 못하고 남의 비난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물정에도 밝은 성격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현우(1991)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정현우에 의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고, 성실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지(知), 정(情), 의(意)를 겸비한 사람이랄까? 부드러운 마음씨가 있는 반면에 강한의지로 싸워 이기는 타입이라고 하였다.

이상으로 얼굴 유형별 성격 측정의 결과에 따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계관형의 소유자는 사교적이고 낙천적이며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상상력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민감하여 간혹 분별력이 없고 비판력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투지가 강하지 못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머리가 좋고, 감각이 뛰어나 예술이나 학문분야에 소질을 보인다.

둘째, 원형의 소유자는 다정다감하고 사교적이라 대인관계가 좋고 적극적이고 솔직하며 다분히 강한 모험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고 앞장을 서는 대담성을 보인다. 반면에 자기주장이 약하고 침착하지 못하며 우월감에 빠지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온화하고 밝으며 타인에게 협조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셋째, 각형의 소유자는 침착, 안정되어 있으며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하여 곧잘 독단적이고 직선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지지를 기대하지 않으며 자기주장 또한 강하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며 억제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갈등이나 감정의 영향을 적게 받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넷째, 역삼각형의 소유자는 자기 본위적이면서도 엄격하고 정확함을 선호하고 비판력이 뛰어나다. 또한 남의 도움을 원치 않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자기 통제력이 뛰어나다. 반면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독단적이며 화를 잘내고 타인에게 다소 관대하지 못하지만 형식과 규칙을 존중하며 매사에 용의주도한 면을 보인다.

다섯째, 사다리꼴 형의 소유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양심적이고 성실해서 도덕적이고, 자신의 일에 결함을 보이지 않으려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자기주장이 약하고 공격적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다. 한편 관상학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소유자는 복상이라하여 사람을 잘 부릴 줄 알고 타인에게 동조하며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줄 아는 성격을 보인다.

여섯째, 오각형의 소유자는 명랑, 쾌활하며 적극적이고 매사에 정열적이며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타인에게 관대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도덕성이 강한 성격을 보인다. 그러나 정열적이다보니 침착하지 못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은 부분들을 보이기도 한다.

3. 얼굴 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얼굴 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분석한 결과 (표-5)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온정성, 냉정성에서는 $F(5.342) = 1.57$ 에서 $P > 0.1684$ 이며,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에서는 $F(5.342) = 1.84$ 에서 $P > 0.1047$ 이며, 지배성, 복종성에서는 $F(5.342) = 0.27$ 에서 $P > 0.9289$ 이며, 정열적, 신중성에서는 $F(5.342) = 1.79$ 에서 $P > 0.1141$ 이며,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에서는 $F(5.342) = 0.46$ 에서 $P > 0.8093$ 으로 나타난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5)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Source	DF	SS	F-value	Pr>F
온정성, 냉정성				
Model	5	166.35011082	1.57	0.1684
Error	342	7255.99471677		
Total	347	7422.34482759		
R-Square		0.022412	C.V	9.609895
강한자아강도, 약한자아강도				
Model	5	124.61187668	1.84	0.1047
Error	342	4636.24731873		
Total	347	4760.85919540		
R-Square		0.026174	C.V	6.671680
지배성, 복종성				
Model	5	19.67476632	0.27	0.9289
Error	342	4967.27925667		
Total	347	4986.95402299		
R-Square		0.003945	C.V	8.502694
정열적, 신중성				
Model	5	133.35495950	1.79	0.1141
Error	342	5093.55021292		
Total	347	5226.90517241		
R-Square		0.025513	C.V	8.496245
강한도덕성, 약한도덕성				
Model	5	43.22062151	0.46	0.8093
Error	342	6491.69891872		
Total	347	6534.91954023		
R-Square		0.006614	C.V	12.00254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임상웅·고충환)

(표-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 결과, 대담성, 소심성에서는 $F(5.342)=2.03$ 에서 $P>0.0740$ 이며, 불신감, 신뢰감에서는 $F(5.342)=1.49$ 에서 $P>0.1927$ 이며, 죄책감, 편안감에서는 $F(5.342)=1.64$ 에서 $P>0.1480$ 이며 진보성, 보수성에서는 $F(5.342)=1.39$ 에서 $P>0.2280$ 으로 나타난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며, 민감성, 강인성에서는 $F(5.342)=2.67$ 에서 $P>0.0221$ 로 나타난 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6) 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Source	DF	SS	F-value	Pr>F
대담성, 소심성				
Model	5	177.26515007	2.03	0.0740
Error	342	5974.65439016		
Total	347	6151.92954023		
R-Square		0.028815	C.V	8.216753
민감성, 강인성				
Model	5	285.88600951	2.67	0.0221
Error	342	7332.51628934		
Total	347	7618.40229885		
R-Square		0.037526	C.V	13.37673
불신감, 신뢰감				
Model	5	112.51052525	1.49	0.1927
Error	342	5167.65901498		
Total	347	5280.16954023		
R-Square		0.021308	C.V	6.926807
죄책감, 편안감				
Model	5	228.41555238	1.64	0.1480
Error	342	9508.57295336		
Total	347	9736.98850575		
R-Square		0.023459	C.V	14.71254
진보성, 보수성				
Model	5	98.74526636	1.39	0.2280
Error	342	4864.65703249		
Total	347	4963.40229885		
R-Square		0.019895	C.V	9.377528

(표-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의 차이에 대한 차검증을 위해 다변량 분석결과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에서는 $F(5.342)=0.83$ 에서 $P>0.5281$ 이며, 불안감, 이완감에서는 $F(5.342)=1.90$ 에서 $P>0.0933$ 이며, 실리성, 순진성에서는 $F(5.342)=0.99$ 에서

P>0.4221로 나타남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적에서는 F(5.342)=2.96에서 P>0.0124 이며, 사변성, 실제성에서는 F(5.342)=2.65에서 P>0.0229로 나타남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7)얼굴유형이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

Source	DF	SS	F-value	Pr>F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적				
Model	5	239.75827062	2.96	0.0124
Error	342	5533.50609719		
Total	347	5773.26436782		
	R-Square	0.041529	C.V	9.821788
강한통제력, 약한통제력				
Model	5	83.43294769	0.83	0.5281
Error	342	6865.49521323		
Total	347	6948.92816092		
	R-Square	0.012007	C.V	13.43560
불안감, 이완감				
Model	5	224.88920181	1.90	0.0933
Error	342	8085.21137290		
Total	347	8310.10057471		
	R-Square	0.027062	C.V	14.22006
사변성, 실제성				
Model	5	198.51600826	2.65	0.0229
Error	342	5124.55008369		
Total	347	5323.06609195		
	R-Square	0.037294	C.V	13.00147
실리성, 순진성				
Model	5	72.02674353	0.99	0.4221
Error	342	4962.97038291		
Total	347	5034.99712644		
	R-Square	0.014305	C.V	8.4648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얼굴 형태가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검증을 위해 다변량분

석한 결과 성격요인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민감성, 강인성 요인과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성요인 그리고 사변성, 실제성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성격 요인간의 상관관계

(표-8)은 성격 요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격요인간의 상관을 보면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50(P < .001)$, 정열적, 신중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33(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30(P < .0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60(P < .001)$, 민감성, 강인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38(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62(P < .001)$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8.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	*	***									***
x2				**	**	**								**	**
x3				***	***	***	**	***				***		***	**
x4							**	**			**		*	*	
x5							**	***			***		**	**	
x6							**	***			***	**	**	***	
x7											**	**	***	*	
x8											**	**	***	**	
x9											**	*	***	***	
x10											**	**	***	**	
x11											**	**	***	**	
x12											**	**	***	**	
x13											**	**	***	**	
x14											**	**	***	**	
x15											**	**	***	**	

* $P < 0.05$, ** $P < 0.01$, *** $P < 0.001$

5.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본 장에서는 얼굴 유형별로 성격요인간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 계란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9)은 계란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계란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 복종성과 정열적, 신중성과의 상관은 $r = .36(P < .01)$,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53(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44(P < .001)$, 불신감, 신뢰감과 자기충족적, 집단의존성과의 상관은 $r = .32(P < .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55(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48(P < .001)$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9. 계란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임상용·고충환)

2) 원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0)은 원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원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온정성, 냉정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40(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민감성, 강인성과의 상관은 $r = .44(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안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40(P < .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63(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66(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0(P < .001)$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10. 원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		•		***	•								
x2	-.36		.03	.27	-.11	.40	.27	.22	.20	.23	-.17	.05	.07	.18	.30
x3		-.17		-.25	.20	-.07	-.09	.10	•	-.26	-.12	.20	-.11	-.05	-.12
x4			.10		-.11	.10	.17	.11	.02	.05	.02	.07	-.13	.26	-.02
x5				-.12		.37	.32	.34	.10	.10	-.07	.07	.15	.23	.14
x6					-.14		-.12	.02	•	-.11	.38	.63	-.16	-.06	-.07
x7						.44	.40	.11	•	.28	-.05	.14	.07	.19	.30
x8								.16	.22	.04	.03	.19	.17	.27	.07
x9										.20	.31	-.12	.20	.21	.23
x10												.20	.21	.23	.13
x11													.66	.40	.11
x12															
x13															
x14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3) 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1)는 각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각형과 성격요인간 상관관계에서 온정성, 냉정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43(P < .001)$,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44(P < .001)$, 자아강도와 죄책감, 편안감과의 상관은 $r = .40(P < .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71(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73(P < .001)$, 통제력과 실리성, 순진성과의 상관은 $r = .41(P < .01)$ 로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11. 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		***						*	*		
x2	.15				**						**				
x3	.19	-.07		*							**				
x4	.33	.16	.32		*						**				
x5	.23	.38	.25	.13		*				**	*	***	*		**
x6	.43	.16	.13	.07	.14	-.09				**	*	***	*		**
x7	.15	-.14	.07	.14	-.09	.08				**	*	***	*		**
x8	-.21	.04	.14	-.22	.37	-.02				**	*	***	*		**
x9	-.19	-.25	.08	-.22	.37	-.02				**	*	***	*		**
x10	.23	-.05	.09	.09	.09	.36				**	*	***	*		**
x11	-.24	.40	.06	-.21	.20	.18				**	*	***	*		**
x12	.32	.06	-.21	.20	.18	.18				**	*	***	*		**
x13	-.30	-.21	.20	.18	.18	.18				**	*	***	*		**
x14	-.13	.20	.18	.18	.18	.18				**	*	***	*		**
x15	.23	.18	.11	.10	.35	.34				**	*	***	*		**
x7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8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9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0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1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2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3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4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5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2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3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4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5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6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7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8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9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0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1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2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3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4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x15					.27	.44	-.21	.30	-.22	.37	-.02	.16	-.25	-.00	.10

* P < 0.05, ** P < 0.01, *** P < 0.001

4) 역삼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2)은 역삼각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역삼각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 관계에서 정열적, 신중성과 대담성, 소심성과의 상관은 $r = .53(P < .001)$ 로서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60(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64(P < .001)$, 지배성, 복종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1(P < .001)$, 민감성, 강인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5(P < .001)$, 자기충족적, 집단 의존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40(P < .001)$ 로서 높은 상관을 보였다.

(표-12. 역삼각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						.			.
x2								
x3						**	.				.		***		
x4						***	.	.		**					
x5								**		.	***	**			
x6							.		**	.	***	**			
x7								.					***		
x8									.				.		
x9										**	***				
x10															.
x11														***	
x12													.		
x13															
x14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5) 사다리꼴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표-13)은 사다리꼴형의 성격요인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사다리꼴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 복종성과 도덕성과의 상관은 $r = .52(P < .001)$, 정열적, 신중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64(P < .001)$, 대담성, 소심성과 불신감, 신뢰감과의 상관은 $r = .53(P < .001)$,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은 $r = .68(P < .001)$, 죄책감, 편안감과 불안감, 이완감과의 상관은 $r = .69(P < .001)$, 민감성, 강인성과 사변성, 실제성과의 상관은 $r = .59(P < .001)$ 로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표-13. 사다리꼴형의 성격요인간 상관관계)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13	x14	x15
x1		.07	.19	.27	.13	.33	.07	.26	-.21	-.15	.12	.02	-.14	.04	.28
x2			.19	.15	.11	.33	.01	.26	.11	.09	.16	.18	.10	.27	.17
x3				.22	.52	.27	-.02	.50	-.11	.01	-.25	.37	-.08	.35	.14
x4					.15	.48	.26	.64	.15	.12	.31	-.09	.04	.26	-.06
x5						.33	.01	.29	-.14	-.01	-.16	.68	-.00	.23	.34
x6							.23	.53	-.16	-.04	.05	.22	-.00	.20	.28
x7								.20	.33	.05	-.03	-.04	.26	.59	.10
x8									.09	.19	.20	.14	.06	.23	.18
x9										.02	.03	-.27	.69	.28	.02
x10											.28	.11	-.02	.24	-.04
x11												-.24	.05	-.16	-.06
x12													-.09	.25	.32
x13														.17	.08
x14															.04
x15															

* P < 0.05, ** P < 0.01, *** P < 0.001

얼굴 유형별 성격 요인간 상관관계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란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과 정열적과의 상관, 불신감과 자기 충족적과의 상관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정열적과 대담성과의 상관, 대담성과 불신감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원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대담성과 불신감과의 상관은 다소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온정성과 대담성과의 상관, 대담성과 민감성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죄책감과 사변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각형과 성격요인간 상관관계에서 자아강도와 죄책감과의 상관은 다소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온정성과 대담성과의 상관, 정열적과 대담성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통제력과 실리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역삼각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정열적과 대담성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지배성과 사변성과의 상관, 민감성과 사변성과의 상관, 자기충족적과 사변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사다리꼴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과 도덕성과의 상관, 정열적과 불신감과의 상관, 대담성과 불신감과의 상관,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민감성과 사변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여섯째, 오각형과 성격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 지배성과 대담성과의 상관, 정열적과 대담성과의 상관, 대담성과 불신감과의 상관은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도덕성과 통제력과의 상관, 죄책감과 불안감과의 상관, 민감성과 사변성과의 상관에서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IV. 結論 및 提言

1. 結論

본 연구의 목적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녀구분 없이 348명으로 나이는 19세부터 23세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측정도구는 Cattell의 16PF 성격요인 질문지로 15개 요인 150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절차는 얼굴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3차원 동작분석기인 비디오풀을 이용하여 촬영된 얼굴을 화상에 비추어 각각의 얼굴에 대해 각 포인트마다 디지털타이징(Digitization)을 실시하였다.

자료처리는 질문지 점수에 의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얼굴에 대한 평균간의 차검증을 위해 다변량분석(MANOVA)을 하였으며 얼굴유형에 따른 성격 분류기준과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처리를 위해 사용된 통계방법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에 입각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결과는 Cattell의 16PF 성격 측정도구의 스텐점수에 의해 분석한 결과 계란형, 원형, 각형, 역삼각형, 사다리꼴형, 오각형의 6가지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얼굴 형태가 성격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따른 결과는 얼굴유형별 성격요인의 차검증을 통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격요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일부 요인을 제외하고는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요인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서양의 성격검사지에 의한 성격분류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적용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따른 결과는 Pearson 상관계수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얼굴 유형별 성격요인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서양의 성격분류가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에 적용이 가능한 결과를 보였다.

4) 서양의 성격 분석 도구에 의한 성격분류를 통해 검증한 결과 얼굴 형태에 따른 성격 분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양철학에 기인한 얼굴형태에 따른 성격분류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 提 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제언한다.

피검자의 대상을 남녀 구분없이 무작위 348명을 표집 대상으로 삼았으나 사실 얼굴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어느 특정유형으로 분류가 불가능한 중간 유형의 얼굴 형태들을 검사자의 임의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적정수에 해당하는 정확한 얼굴 유형별 피검자를 대상으로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며, 정확한 얼굴유형 구분이 되지 않는 요인으로 인해 연구결과에 다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강태호(1992), 관상보는법, 동양서적, P.27
고영희외 공저(1990), 심리학, 서울, 양서원, P.200
고충환(1987), 체육의 측정평가, 연세대학교 출판부, PP.485~490
고충환,김기용,장국진(1994), 운동행동의 심리학, 보경문화사, PP. 267~274
김근영(1992), 운동심리학입문, 보경문화사.
김성현(1995), 한국인의 얼굴 한국인의 운명, 동학사, PP.95~100
류정무,이강현(1993), 스포츠 심리학, 민음사, PP.223~249
마의천(1994), 관상과 운명, 도서출판 밀알, PP.18~68
민영순, 「교육심리학 신강」 서울 : 문음사, PP.318
朴雅晴, 「성격 심리학」, 교육과학사, PP.61~71
박일주(1996), 관상을 알면 팔자가 보인다, 좋은글, PP.52~57
박정근(1995), 스포츠 심리학, 대한미디어, PP.65~77
백준기(1984), 전통관상법, 송원문화사, PP40~42
염태호., 김정규(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한국심리적성연구소.
윤명중(1991), 얼굴의 미학, 동학사, PP.21~27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1993), 성격진단검사, 중앙적성연구소.
- 李鉉洙, 성격 및 개인차의 심리학, 서울, 祐成文化社, P.151
- 임번장(1980), 남자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퍼스넬리티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 정량은(1976), 「심리학 통론」, 서울 : 법문사, P.141
- 정진호(1996), 얼굴은 선택된 운명이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도서출판 청송, PP.33~38
- 鄭鉉祐(1991), 인상 경영학, 명문당, PP.11~35
- 정현우(1994), 알기 쉽게 볼수 있는 인상학, 자유시대사, PP.43~44
- 崔鎔想, 『초등교사의 성격특성과 학급경영 활동과의 관계』 한국교원 대학교대학원.
- 최천권(1996), 관상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도서출판 장백산, 한국체육학회지 제3호.
- Rogers, C.R, Client - centred therapy :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 Houghton, 1951.
- G.W著(1968), 今田惡監譯 : 「人格心理學 (上.下.)」, 誠信書.
- E.R. Hilgard Introduction to psychology, 3rd. ed., N.Y. Harcourt Brace, 1962. 학생생활연구소 제9집, 경상대, 1983.